

# 追悼文

幽明의境界를 달이한 당신들의十一週年을마지한 오늘우리들은 당신들의  
 哭을慰勞합니다

당신들노하여금悲慘한孤魂이되게한帝國主義者들에대한憤怒와憎惡心을내로하며약수같은놈들의蠻行을여기에하번더구탄하는바입니다

당신들의遺骨이祖國땅안에안겨지게할것을約束했고또努力도했으나實現되지못하고눈물맨친당신들의息의下史가

85

全在界에박겨지々못한채로依然히恨踏은이땅한주석에서哀願에잠겨있습니다

當身들의悲願이며우리들이希求하는祖國의길이막져있는것은당신들을이같은慘事로誘引한戰爭狂信者들이自己의罪行을反省하지않고殺人과吸血노서만이利益을追求하려는手段을버리지않고脅迫과買収外欺瞞으로서政權을틀어쥐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全世界는 이같은놈들을  
의惡行을許容하지않을것이며戰爭眺者  
들의吊鐘이 울려질때도 멀지않으며 우리民族의  
悲願인南北의統一도妨害하는米帝와그암자비  
들의兇惡을追惠하는鐵槌가되고있는朝鮮로  
동黨三次金黨大會의을바르기도實踐的이며三千万  
의要望이부합되는平和的祖國통일에대한방안인  
宣言에의거한行動들이요원에불꽃처럼이어나오았  
으며在日十萬의가슴마다에도波動치고있습니다  
이偉業을達成함이당신들의怨恨을풀게함이되며  
우리들의怨願을勝取하게되는것임으로同胞間의和  
睦과團結함으로서國際輿論을환기시키는일들이  
당신들五三四柱의勳을慰勞하는것이되며고로  
히安置될 조국품이로되니오갈 길이되리라오병  
강합니다

이러한運動을推進시킬것을과포함무도한日敵의  
만행을糾彈하는無言의당신들의소리를代  
身하여金在界에서의聲을약속드리며당신  
들의명복을바랍니다

一九五六年八月二十四日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최로시마현본부  
대표 하정진

浮島北遭難者鮮人出身戰沒者靈 앞